



“초록으로 스며든다” 제주 어디를 돌아봐도 초록이다. 이름부터 화려한 꽃들이 앞서서 그렇지 쉽 없이 달려서 닿은 지금 계절에 숨 돌리랴 애써 토닥이는 건 초록밖에 없다. 이런 심이 또 어디 있으랴. 그 느낌을 채우려고 숲길을 따라 초록으로 사람들이 스며들고 있지 않을까. / 사려니숲에서 송인혁 사진가

## 올해 첫 도·교육청 추경안 본회의 통과

### 제4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려 “집행 속도 내주길” 당부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가운데 조례안 19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7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427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2104억 원 대비 4555억 원 증액한 7조6659억 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5964억 원 대비 75억 원 증액한 1조6039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안은 먼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총 87개 사업의 143억5380만 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급식기구환경개선 1개 사업의 4억 원이 삭감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벌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2104억 원 보다 4555억 원이 증가한 7조6659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결위는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 홍보 추진 예산 2억 5000만 원 등 164억98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불편 해소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성산터진목 4·3학살터 정비사업 등의 사업명 변경 검토를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6039억2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5억3400만 원 증액 편성됐다. 급식기구환경개선 사업에서 4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해 예비비에 9억 원을 증액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45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에 활력이 돼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이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 나가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도내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면안내

2

제427회 임시회

3~7

주요 이슈

8~9

생생 의정 활동

10~11

함께 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어렵게 마련한 예산, 효과 극대화에 집중해야”

제427회 임시회

김경학 의장 개·폐회사서

“침체된 경기·소비 활성화  
관광 및 건설경기 부양하는  
전방위적 대책 지속 고민해야”

“자연재해 농업 피해 대비  
선제적 지원 등 노력 당부”

지사·양 행정시장 불출석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고보조금,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000여억 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와 제주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경기호전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요구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의 타당성과 시급성, 효용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절차가 본격 시작됐다”며 “도는 작년과 비슷한 2조1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신청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예산 35억 원이 편성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도와 도의회가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국비 절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 “본격적인 마늘 수확이 시작되었지만, 올해는 이상기후의 여파로 수확량은 크게 줄어들고,

별마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가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지원 및 복구시스템 마련에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의원들께서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며 열과 성을 다해 심사했다”며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이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도내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2025년 열릴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APEC 제주 유치에 온 도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회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오늘처럼 양 행정시장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예결위, 추경안 종합심사...수정 의결

재정안전성 우려 목소리 높아  
수소 트램, 공감대 형성 주문  
도교육청 조직 진단 “숙고해야”

억2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5억3400만 원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재정안전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지속 제기됐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당장 내년부터는 채무 관리도 쉽지 않고, 상환해야 할 자금은 늘어나고 막막하다”며 “채무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2023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축소해 본예산에 편성했다”며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켜야 할 것도 다 기금으로 사용하려 하는 게 모호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소 트

램’ 관련 예산이 도마에 다시 올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은 “수소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도민들이 사업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상임위 내에서도 우려와 고민이 많았지만 통과시켰다.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해서 잘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e호조 시스템의 심의권 제약을 두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제주시에서 e호조 입력을 막았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e호조에서 입력을 하고 심의 단계에서 잘라냈어도 되는데, e호조에 입력도 하지 못하

게 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제주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조직진단과 관련한 우려들이 제기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이번 조직진단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안전복지국으로 간다. 인권, 교권이 이런 부분이 안전복지국에 맞는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이 조직진단에 빠져 있다면 4·3을 전국화, 세계화 시키겠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제주 4·3교육의 위축을 우려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2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면서 제2부교육감을 신설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제주 교육의 중요한 현안들을 놓고 지금 부교육감과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공론화 과정은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의회 대표단, 스웨덴·네덜란드서 복지정책 교류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스웨덴 및 네덜란드 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과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이 함께했다.

첫 일정으로 4월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시의회를 방문해 올레부렐(Olle Burell)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 김경학 의장은 “스웨덴은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펼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인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제주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레부렐 의장은 “스톡홀름은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제주도도 스톡홀름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방문에서 영감을 받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대표단은 4월 30일 사회보험청을 방문해 스웨덴 국가 보험 및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사례를 청취했고, 같은 날 북유럽

최초로 문을 연 스웨덴 한국문화원(원장 이경재)을 찾아 문화원 운영 상황을 살폈다.

5월 2일에는 스웨덴 국회를 찾아 헌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및 사회보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났다.

먼저 스웨덴 국회 헌법위원회 에릭 오토슨(Erik Ottoson)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뵙고, 스톡홀름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4월 28일~5월 5일 스웨덴 국회 등 방문해 전반적인 정책·사례 청취

### 네덜란드 복지·농업 결합 케어팜 현장도 찾아

김경학 의장은 이어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모델로서 복지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저출산 극복 등 배울 점이 많다”며 “방문 기간 어린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마주했다. 육아 부담을 나누는 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릭 오토슨 부위원장은 “스웨덴에서는 육아에 대한 가치관 정립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부모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드룬 브루네고드(Guudrun Brunegard) 의원 역시 “스웨덴에는 아빠 휴직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서 아빠가 처음부터 아이 성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면서 육아 부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위원회와의 면담 직후 스웨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사회보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도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스웨덴이 이를 잘 극복한 나라인 만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며 “이 밖에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특히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요한 헬베리(Johan Hullberg) 의원은 “스웨덴

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위원회 미카엘 달크비스트(Mikael Dahlqvist) 의원은 “스웨덴에서는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장애가 있으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보조 도우미가 지원되는데 일상생활은 물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대표단은 5월 3일 네덜란드로 이동하여 드 마르센(De Marsen) 케어팜(Care Farm)을 방문하고 바우터 쉐(Wouter Joop)을 만나 생산과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장을 둘러보고,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2024. 5. 1. (수) - 7. 31. (수)



**공모분야** 4개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응모자격** 누구나

**응모방법**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우편 : hj001379@korea.kr  
 - 등기우편  
 우)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연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시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및 상금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100만원	각 60만원	각 40만원

 ※ 시상규모는 응모작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발표** 2024. 8. 30.(금)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

**문의처**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064-741-2339)

# 전국 광역의회, 추가배송비 개선 공동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가 지난 4월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개최된 가운데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이 이를 제안했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정기회에서 송영훈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에는 제주 해상 운송의 공적 기능 도입을 통해 제주지역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 등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제주를 포함한 도서·산간 지역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4월 25일 제주서 정기회 개최

### 송영훈 위원장 건의안 제안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돼

주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차별 없이 보편적 생활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영훈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도서·산간 지역 화물 및 택배 등 물류체계 개선 안건에 대

해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오늘 회의 결과는 뜻깊다"며 "앞으로도 제주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 전국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 시·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서울특별시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충청남도의회),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경상남도의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전라남도의회)을 제안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5월 27일 전라남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다.

한편 송영훈 위원장은 5월 16일에 강원도 쏘라치 삼척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도 참석해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제주 및 남해안 일대 전지훈련 유치 지원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 의원 입법, 다양한 분야 제도개선 이뤄

### 제426회 임시회 의원 입법활동 사회적 약자 등 권익향상 앞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입법활동이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제4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총 14건의 의원 입법 조례를 통한 제도개선이 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만 면제되던 공영버스 요금을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면제 혜택을 확대해 어릴 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또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

도1·이도1·건입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 장소 정비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접흡연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는 중복 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이 많은 뇌병변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항을 규정해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증진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주차 편의 제고,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상황 점검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김경학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입법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펀드 운용 효율성 제고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5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중술 전무를 초청해 '펀드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김중술 전무는 이날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의 이해'를 주제로 국내 벤처캐피탈 현황 및 체계, 투자재원 및 투자 실적 등을 설명하고 기업 성장에 있어 벤처캐피탈 역할을 소개했다. 또한 모태펀드의 개요와 운용 현

황, 주요성과 사례 등을 통해 펀드 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승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이번 추경에서도 2건의 펀드에 대한 출자금 예산이 요구되는 등 펀드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펀드 조성·투자 및 자금관리·회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 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 4월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제4차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과 농·수·축경제분야 현

안 사항 및 2024년 활동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호 위원장은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들이 제안하고 자문해 주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정 역량 강화 연수

#### 서귀포서 플로깅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지난 5월 6~7일 서귀포시 서흥동 일대에서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의정 연수에는 현기중 원내대표(성산읍)를 비롯해 김항국 부의장(용담1·용담2동), 원화자(비례대표)·강하영(비례대표)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정방·중앙·천지·서흥동),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림읍), 강충룡(송산·효돈·영천동)·강경문(비례대표)·고태민(애월읍갑)·이남근(비례대표)·이정엽(대륜동)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 연수 첫날에는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과 이명수 사무처장의 강연, '총선 이후의 국민의힘'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튿날에는 서귀포시 솜반천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통해 마을 정화 활동에 나섰다.

현기중 원내대표는 “도민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물론 진정한 혁신을 통해 여러분께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면서 “한결같이 도민 곁을 지키는 국민의힘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위원회, 일일 교사 재능 기부 나서

#### 초등학교 수업진행 참여 현장 애로사항 청취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소속 위원들이 늘봄교실 운영 학교를 방문, 일일 교사 재능 기부에 나섰다.

이번 재능 기부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위원별로 추진하게 됐다.

## 마늘 생장피해 지원 방안 마련 요구



### 양병우·김승준·하성용 의원 5월 13일 관계자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더불어민주당, 대정읍)·김승준(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하성용(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의원은 공동으로 지난 5월 13일 대회의실에서 (사)전국마늘생자협회 제주도지부, 농협 관계자,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2차 생장피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양병우 의원은 “올해 이상 기후

로 인편분화기에 고온과 잦은 비 등으로 인한 2차 생장 발생량이 57.8%에 달하고 있다. 채소가격 안정 지원 사업비를 활용해 벌마늘(2차 생장 마늘)에 대한 농협 수매지원 계획이 있긴 하지만 농가비 부담 경각 대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협수매 계획은 계약재배 농가로 한정하고 있어 계약 농가가 아닌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계약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재해 피해로 인해 농가들의 소득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농약 및 농자재 대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금에 대한 1년 이상의 상환 유예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이를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 “뇌전증 환자·장애인 치료 접근성 확보해야”

### 5월 14일 보건복지안전위 주최 뇌전증 중심으로 한 토론회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지난 5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뇌전증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

이자 뇌전증지원센터장인 홍승봉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뇌전증의 경우 약물·수술 치료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 자살 등 동반되는 정서 문제, 학교와 직장에서의 문제 등 포괄적 뇌전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제주의 경우 뇌전증 실 치료 인원이 4000~5000명에 이르지만 약물 치료만 가능할 뿐 수술 병원 및 포괄적 뇌전증 관리시스템이 없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최준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센터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장애진센터 설치 모델을 적용한다면 도의회와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가칭)뇌전증지원법 개정을 통해 뇌전증 지원센터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지정과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실현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처음은 김창식 위원장이 장식했다. 지난 4월 23일 한라초등학교를 방문해 창의 미술과 줄넘기 수업에 직접 참여하며 학생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어 4월 25일에는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이 효돈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일일 교사 활동 이후에는 교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늘봄학교 조기 정착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시설 및 통학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김창식 위원장은 “이번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늘봄 교실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들을 종합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5월까지 늘봄 교실 운영 학교를 잇달아 방문하게 된다.

**행정자치위원회**



### “세수 결손 대책 마련 없이 자체 가용 재원 전부 써”

하반기 마이너스 추경 걱정  
인구 대책 마련 시급 지적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가 지난 5월 20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제주도 추경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하반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가 세수 결손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가용 재원을 끌어다 추경에 편성했다. 올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추경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각 사업부서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만 좀 봤다”며 “혹시 집행률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예산들은 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았으면 몇천억 원 정도는 사업 부서들과 조정해서 가용재원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 분야에 다시 투입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확장 재정의 추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인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인구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으면, 적은 인구에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견입동)은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 예산 편성 규모 및 추이에 대한 재정 통계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과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정엽 의원은 “추경안을 보면 예산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양 행정시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정체제개편 지원을 위한 행정시 TF팀에 6급 이하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다. 제주도 심부름 역할만 하라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하성용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양 행정시가 ‘과’ 단위 관련 부서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시 요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한시 기구서 ‘의료’ 빠져, 꾸준한 관심 갖길 당부”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서  
간병로봇 지원사업 우려 목소리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가 지난 5월 20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언급하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의료’ 분야가 빠진 것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한시 기구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확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등을 신설할 것을 담았다.

현지홍 의원은 “한시 기구는 도내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의료에 취약한 데다 전공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의료 대란 같은 상황에서 손 놓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오로지 인재다. 조직개편에서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간병로봇 지원사업과 관련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것이냐”고 물은 데 이어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웨어러블로봇사업은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신청했다. 도가 신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로봇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도내 장애인복지관이 6곳이 있는데 나머지 5곳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미 위원장도 “웨어러블과 관련한 기기 보급은 전문가가 배치된 병원에서 하고 있다”며 “예산만 편성하고 둘 것이 아니라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원회**

### 수소 트램 추경 편성... 공감대 형성 여전히 부족

대중교통 예산 과다 편성 우려  
“도시계획, 공공의 이익 우선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가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가운데 지난해 제동이 걸린 수소 트램 관련 예산이 올해 추경에 다시 편성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5월 20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향후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버스 BRT 사업으로 2300억 원이 소요되면서 대중교통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몇 개월도 안 돼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것”이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앞서 5월 17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심사한 가운데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대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에 해당한다.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지양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며 “진정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반대 진정을 낸 진정인들은 이 지역을 꽃자왈이라고 보고계신다. 이 지역이 꽃자왈인지 아닌지가 계획관리지역 변경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과 관련해 “협약서의 적절성, 적법성, 효력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봉개동에만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이 나쁜 선례를 만든다. 봉개동 전체 주민의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5월 16일 제주 외항 2단계 사업 현장을 찾았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현장에서는 화북천 하구 바로 앞을 막으면서 침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1100도로 환승주차장 여러가지 문제 소지 제기

###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없는지” 아트플랫폼·관광산업 등 지적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가 지난 5월 17일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 관련 추경 예산과 관련해 “사업 위치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보호구역 형상 변경 심의 대상지다. 적지 않은 면적에 주차장 조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며 “국제대학교 쪽에 성판악 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승아 위원장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도민 피로감이 큰 내용이다. 전체가 만신창인데 손가락, 발가락 하나 이렇게 고치는 상황”이라며 “당초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상임위

에서도 건의했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산 신청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단절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의 관광 산업을 언급하며 “현재 제주 관광이 위기라고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 최근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제주가 과거의 제주가 아니다.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행 소비자들이 제주에 대한 관심과 방문 의향이 급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며 “추경 예산을 보니 해외 마케팅 관련 예산이 20억, 국내 마케팅 관련 6억 원, 비율적으로만 봐도 국내 쪽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 현안 점검... 도정 정책 개선 요구

### 농업 및 소상공인 정책 점검 필요 예산 집행 전무 541건 “서둘러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가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 가운데 도정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5월 20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별 마늘 문제로 농가뿐 아니라 도민 사회 관심이 많다. 계약 농가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계약이 되지 않으면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적, “농업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가는데, 농업에 관심을 두고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탐나는 전 관련 정책들이 세밀하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은 “공동물류지원사업에 선정된 위탁 업체가 3곳인데, 서귀포 시내에 한 곳도 없다”며 “공모 사업 모집 공고를 봤는데 규모가 작은 서귀포 업체는 할 수가 없는 구조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 “4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전무한 사업이 541건이다. 금액으로는 1846억 원에 이른다”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집행 예산 과목들을 보니 민간보조사업이 많다. 코로나19 때보다 경기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불출석과 관련해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강연호 위원장은 “제주도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으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도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 “도교육청 조직진단 정확한 분석 필요해”

### 인건비↑, 교육활동 예산↓ 지적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 높아져 우려”

지난 5월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제1차 회의에서는 인건비 증액을 비롯한 도교육청 조직 진단, 기초학력 미달 등과 관련해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날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인건비라고 본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부분이 52%에 이른다”며 “반면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줄어들었다.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어 “조직진단 관련해서도 72명의 인원이 증원돼서 학교 현장 지원이나 기초 학력 지원 기여도 등이 진단돼야 하는데 분석이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김창식 위원장도 “추경에 인건비 121억이 포함됐다. 각 부서별로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 추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기초학력과 관련해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초학력에 미도달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법적으로 학령인구가 일정 이상 돼야 제2부교육감이 신설된다. 학령인구도 줄고 있는데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것처럼 제2부교육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첫 단설유치원으로 월랑초병설유치원을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개원 시기 및 시설 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재산 분할 문제도 고민해야 하며, 급식소도 급한 문제다. 모듈러 시설을 활용해 조성하는 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김창식 위원장도 “오래 내다보지 못하는 건물을 지으면서 모양만 좋게 해 두면 될지 걱정된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 대륜동 발전계획 수립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지난 5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좌장을 맡아 대륜동 관내 3개 마을회장,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 주민 주도의 대륜동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정엽 의원은 “이번 정책 간담회는 지난해 4월과 9월에 개최됐던 정책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지역 주민 주도의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행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를 포함한 대륜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대륜동의 미래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대륜동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연구 용역이 추진 중으로, 11월 말 완료 예정이다.

# “4·3, 제대로 알고 바로잡아야”

### 4·3특별위, 장찬수 판사 초청 재심재판 이해 제고 강연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지난 4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의 재심재판 이해하기’를 진행했다.

이날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가 강연자로 나서 그간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증언을 풀어냈다.

장찬수 판사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제주4·3 재심은 희생자로서 제주4·3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거나 수형인 명부에 인정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은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분류된다”라며 “희생자의 관할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이지만, 희생자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지법이 아닌 4·3 당시 재판을 받았던 지역에서 재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심은 이념이 옳으나 그르

냐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제주4·3 무죄 판결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벗겨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제주4·3을 제대로 알고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다. 제주4·3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권 위원장은 “장찬수 판사는 제주4·3 전담부 부장판사로 부임해 제주4·3 희생자 1191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마음으로 4·3희생자들을 생각하고 제주4·3의 남은 과제에 진심으로 고민하던 분”이라고 말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모형 개발 필요”

### 제주교육발전연구회 5월 13일 학교복합시설 관련 토론회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는 지난 5월 13일 소회의실에서 학교, 지역 주민 모두에게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이 ‘학교복합시설 구축을 위한 지자체-교육청-학교-마을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상민 소장은 학교복합시설 구축에 대한 배경과 관련 법령, 타시·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시설 운영 모형을 제시했다.

이상민 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

는 학교복합시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협의를 통한 소유와 운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원도심 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용을 통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모형을 개발해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상황에 적합한 학교복합시설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의원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 교수)과 공동으로 지난 5월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운용의 핵심 내용은 향후 생태 후견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그 권한과 역할이 될 것”이라며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과정에서 생태후견인 제도설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라초 아침체육활동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지난 5월 21일 아침체육활동을 시범 운영 중인 아라초등학교를 찾았다.

홍인숙 부위원장은 아라초등학교의 아침체육활동 프로그램인 배드민턴과 줄넘기 활동을 살펴보고, 현장 교원 및 참여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

했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직원의 업무 가중과 학교시설 안전 및 미참여 학생 관리 등은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홍인숙 부위원장은 “아침체육활동이 안착하고, 더 많은 학교에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 언론 발전 기반 조성 정책 모색



####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도기자협회와 공동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의원 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지난 5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의 ‘지역 언론 지원 조례의 현황과 쟁점’ 주제 발표에 이어 현길호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제주도기자협회 김익태

회장은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립적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공동대표의원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 제시, 갈등 사안에서 공론의 장 마련 등 지역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어선 내 생활폐기물 처리 제도적 토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 4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어선기인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를 초청해 어선 내 생활 쓰레기의 관리 방안 등 수거·처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박성욱 박

사의 ‘어선기인 어구 및 생활용품 해양 투기 현황과 대책’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어선주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강경문 위원장은 “어업·낙시 어업 활동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도의 탈플라스틱 정책 일환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강철남 위원장, 비양도 펄랑못 습지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은 지난 5월 7일 비양도에 위치한 펄랑못 습지를 방문했다.

펄랑못 습지는 밀물 때는 지하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는 지하수가 차오르며 담수호가 되는 국내에서도 드문 염습지다. 과거 비양도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문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습지 내 악취

발생과 수질 악화 문제가 발생했었다. 펄랑못 습지는 수문을 새롭게 정비해 재개방됐고, 현재 깨끗한 수질 유지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수문 개폐를 탄력 운영 중이다.

강철남 위원장은 “육지와 바다와의 단절된 흐름을 되돌려 놓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제는 펄랑못 습지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보다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

#### 농수축경제위, 동물보호센터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제427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과 유기·유실 동물들의 보호·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도에서 지원 중인 도내 유기·유실 동물 입양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가 포화상태로 인해 안락사 증가 등 적절한 동물 복지형 보호·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신축 중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이른 시일 내 추진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강연호 위원장은 “점차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제주노동존중사회 초청 강연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대표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난 4월 29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노동자의 맘, 소금꽃나무’ 주제의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초청 강연은 제134회 노동절을 기념하며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녕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금꽃나무」의 저자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고의숙 대표의원은 “노동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번 초청 강연을 통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 2024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NO**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Q5**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NO**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기한 제주어 ③

## 골악골악하다

(동사) 자꾸 반복하여 말하다

“흐쭉 깎읍서게. 제위 만원을 안 내려주쿠과?” “지금도 하영 누린거우다. 푼디 강 봅서. 영 존 같옷도 옷주마는 이만이 싸게 사도 못홉네다.” “영 올라시키윈. 알앗수다 내릅서. 박박우기멍 골악골악혀봐도 베통흐 트멍도 웃일 거고, 집이신 현 같중일 바농질 흐멍이라도 더 입당 말짜에 또시 오쿠다.”

· 흐쭉 : 조금	· 같옷 : 감물을 들인 제주 특유의 옷	· 굽거나 뽐을 때의 소리
· 깎읍서 : 깎으세요	· 같중이, 감중이 : 광목이나 무명으로 만들어 감물을 들어 햇볕에 바랜 남성의 아래 옷	· 박박우기다 : 심하게 우기다
· ~게(첨사)	· 제위 : 겨우	· 베통하다 : 희미하다
· 내려주쿠과? : 내려주겠습니까?	· 누린 : 내린	· 트멍, 꼬멍, 곰, 트망, 톱바기 : 톱, 사이
· 하영 : 많이	· 누린 : 내린	· 톱, 사이
· 푼디 : 다른 데	· 강 봅서 : 가 보세요	· 웃일 거고 : 없을 것이고
· 영 : 이렇게	· 영 존 : 좋은	· 신 : 있는
· 올랐을까	· 올랐을까	· 바농질, 바농질, 침주질 : 바느질
· ~원(첨사)	· ~원(첨사)	· 흐멍이라도 : 하면서라도
· 놔두세요	· 놔두세요	· 입당 : 입다가
· 심하게, 힘 주어	· 심하게, 힘 주어	· 말짜, 말째 : 나중
		· 또시 오쿠다 : 다시 오겠습니다

양전형 저「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기원합니다

이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 우주산업의 미래, 도정의 노력에 달려있다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10년 탐라대학교가 문을 닫은 이래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은 하원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숙원사업이었다.

도정에서는 지난해 7월 옛 탐라대 부지인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첨단 위

성 제조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한화시스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하원마을회와 간담회, 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부터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는 신성장 산업 중 하나인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의 중심 지역을 하원테크노캠퍼스로 정한 것이다.

지난 4월 29일 제주한화우주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함으로써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우주산업 거점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2025년 말 한화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위성 개발·제조시설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연간 수십 기의 위성을 생산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뿐만 아니라 연관기업

들도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 고용 창출, 세수 확보 등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도정에서는 기공식에 앞선 4월 26일에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행정적, 세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그간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반복되었던 상황을 벗어나 하원테크노캠퍼스 운영 계획이 구체화하고 사업이 실현되어 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우주의 기적'을 표방하며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전-전남-경남을 중심으로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출범한 바 있다.

클러스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2031년까지 국비만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제주도가 우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도정에서는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에 대한 도정의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정에서는 제주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을 위해 하원테크노캠퍼스에 힘을 모아준 하원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복된 희망 고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힘을 모아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상생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차명계좌, 세무·신분상 불이익 가는 지름길

최기영

제주세무서 조사과 국세조사관



최근 제주세무서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차명계좌 사용은 명백한 불

법이다. 최고의 절세는 '사업용 계좌' 사용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고의 또는 부주의를 불문하고 차명계좌 사용 혐의가 포착될 경우 필요에 따라 세무조사 또는 서면 확인을 해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탈세,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세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소개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식당 매출액 수억 원의 신고를 누락해 세무조사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법인 대표로 재직 중인 B씨는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억 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해 세무조사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추

징당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홍보 글을 지속 게재했다. 이에 이용객 등이 차명계좌를 신고해 세무조사 후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명계좌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최고의 절세는 '사업용 계좌' 사용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송상현

제주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장 경위



지난해 발생한 오송 참사는 기관이 사전 예방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제때 작동시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중대 시민 재해다.

각종 항공기와 선박에 구명조끼 비치법이 법률로 의무화 됐을 만큼 구명조끼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다중 이용 차량의 경우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오송에서 폭우로 인해 버스가 지하차로에 갇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상에 16인 이상 승합차량의 비상탈출 장치에 구명조끼 비치를 추가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매해 일어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70명 이상이 사망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7건의 차량 해상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는 4월 초 애월항에서 차량이 해상에 추락해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봄을 맞아 관광객들이 차량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관광객들이 제주 지리에 익숙지 않

아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잦다.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목격자 등의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경은 해상 추락 및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대비해 운전자가 차량에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구명조끼를 지난해 개통한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 구간을 운행하는 공용 시내버스에 시범 배부할 계획이다.

# 자동차에도 '생명조끼'인 '구명조끼'를

##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찾아요”

7월 말까지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안과 지역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민 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제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등 총 4개 분야다.

접수 방법은 전자우편(hj001379@korea.kr)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064-741-2339)로 문의하면 된다.

입상작 발표는 오는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로 이뤄질 예정이다.



### “의정역량 강화”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충청북도 일원에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의정 목표 달성을 위한 타 시·도 우수 의정 정책 사례 견학에 나섰다. 이 기간 지방의회 외교활동 특화 교육과 더불어 충북지역혁신플랫폼 우수사례를 살피고 원도심 도시재생 사례를 답사했으며, 충청북도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도 했다.

## 도남초·화북초 청소년 의정 체험 참여

### ‘1일 도의원’ 변신해 심사 보고, 자유발언 등 모의의회 의사진행 진행

도남초등학교와 화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 체험에 참여, ‘1일 도의원’으로 변신했다.

지난 5월 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남초등학교 감성리더십부 소속 학생 17명은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에 참여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심사 보고와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 토론 및 전자 표결, 3

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기후 문제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청소년의 폐쇄장소 이용’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오늘 의정 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자세를 배우므로써 앞으로 꿈을 이루는 자양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5월 9일에는 화북초등학교 4학년 90명이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 체험에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2개 팀으로 나눠 1일 도의원으로서 심사 보고와 조례안 찬반 토론, 전자 표결 등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했다.

도의원들과의 만남에 자리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학생들이 이번 의정체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은 물론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므로써 원하는 꿈들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19개 팀·518명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진행 중이다.



## ‘합창’ 어울림의 매력 선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4월 2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며 ‘낭그늘 힐링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도의회 합창단과 장애인어울림 띠앗 합창단의 공연으로 채워졌다.

두 합창단은 ‘why we sing’ 합동 무대를 선사했으며, 공연 마지막에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부르며

관객과 ‘합창’을 만드는 어울림의 매력으로 ‘함께’라는 의미를 확인했다.

김경학 의장은 “오늘 공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 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재정정책 분석 안내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2024년 3~4월)를 발간했다.

「재정정책정보지」는 지방재정 분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내·외 재정분석 자료와 최근 재정연구 동향, 재정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통권 제17호에 재정·예산 분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연구 동향 분야에서는 2022

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분석 연구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절감 방안 연구를 소개했으며, 재정 관련 법령 분야에서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다뤘다.

또한 재정정책 이슈 분야에서는 서울시 2022년 청년 패널 조사 모니터링 사례와 도심 항공(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결산심사 준비 사항, 지방세수의 확보 여건의 진단과 시사점, 제주지역 실물 경제 동향,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을 담았다.